

2.28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Vol. 101
2026 봄호



제26권 1호 통권 101호

저기
우리들의 태양이 —
이글거리기
때문



Contents



| 표지 사진

이번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의 주제는 '저기, 우리들의 태양이 이글거리기 때문'으로, 김윤식 시인의 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불의한 현실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학생들의 용기와 그 정신의 계승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래에는 기념식에 앞서 2·28민주운동기념탑에서 참배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회원가입

- 2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사**
김민석 국무총리
- 6 2·28 이야기**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회장
- 8 특집기사 2·28민주운동 기념행사**
-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저기 우리들의 태양이 이글거리기 때문”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이모저모
-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
“시민의 일상 속에서 만난 2·28”
- 2·28을 기억하고 노래하라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정신 문화축전”
- 대구시립교향악단 2·28민주운동 66주년 특별연주회
“기억과 울림”
- 32 2·28 정신, 기억·기념을 넘어**
계승·실천으로_홍덕률
- 40 『실록 2·28』 발간과 그 기록의 의미_조해정**
- 52 인문학의 향기**
새-박기옥, 순산을 기원하다-김학조
- 55 청년의 목소리**
오늘날 베트남 젊은 세대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애국-간티두안
- 62 서당에서 배운 정신, 2·28로 이어지다-이성중**
- 67 소년의 춤, 학생들의 행진-황규진**
- 74 2·28 주요소식**
- 2026년 제1차 원로자문위원회의, 이사회 및 총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28기념회관에서 개최
- 조국혁신당 대표 2·28기념탑 참배
- 한동훈 前국민의힘 대표 2·28회관 방문
- 창작 「오페라 2·28」 공연
- 2·28민주도서관,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2·28대학
- 2·28민주운동 라디오 캠페인 송출
- 2·28TV 대담 촬영

2·28회원님들이 2·28의 큰 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며, 대구·경북의 자랑스러운 정신인 2·28을 널리 알리고 이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요. 2·28과 함께 하는 회원님들의 뜻과 정성은 2·28정신 선양과 계승에 큰 힘이 됩니다.

- 연 회 비 정회원 30,000원 / 후원회원 개인 100,000원, 단체 1,000,000원 이상입니다.
- 계좌번호 농협 301-0248-9904-81 / 대구은행 505-10-139462-2
- 예 금 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①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기념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_____
위대한 첫걸음”



행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8민주운동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
2·28민주운동 66주년입니다.

불의에 항거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슬 퍼런 독재에 용감히 맞섰던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28민주운동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저기, 우리들의 태양이 이글거리기 때문'입니다.
대구 출신의 김윤식 시인이
2·28민주운동 현장을 목격하고 남긴 시구입니다.

시인의 시구처럼
민주주의의 미래가
독재의 어둠에 가려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빛을 밝혀준 것은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까지 감행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야당 후보의 유세장에 못 가도록
일요일 등교를 지시하며
학생들마저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 학생들의
높은 정치 참여 의식은,
민주주의가 멈춰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사

여덟 개 학교,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구는 불의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학생들의 용기와 신념이 도화선이 되어
시민들의 가슴에
민주주의의 불꽃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대전 3·8 민주외거,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되며
마침내 4·19 혁명을 이루어 냈습니다.

알고 보니 대구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60여 년 후 이 땅의 내란을 막아냈던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습니다.

이러한 대구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헌신 위에서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이 역사를 바로 세웠습니다.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최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이곳은 의병 항쟁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흘렀던 곳입니다.

일제의 경제 침탈에 맞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됐고,
가장 많은 독립 유공자를 배출한 곳이
대구·경북 지역입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며 산업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선도 지역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경주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지방 또한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서
행정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구·경북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용기와 헌신은
학생들의 마음 속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뿌리였고
오늘도 그 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계신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국민주권정부는
2·28 정신을 계승하고 재조명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②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2·28이야기




행동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서 '2·28이야기'를 전하는 곽대훈 회장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은 66년 전 1960년 이곳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딛고 희망의 빛을 밝혔던 민주운동의 역사와 함께 이뤄 온 것입니다. 서슬퍼런 독재와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현실에서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고자 했던 학생들의 결단은 올바른 민주주의의 길을 열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누구보다 먼저 불의에 저항했던 대구의 고등학생들의 정신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시민이 정치 의사를 표출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였습니다. 당시 야당 후보의 선거유세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일요일 등교 지시, 토끼 사냥, 영화 관람 등 이해할 수 없는 등교 이유, 이처럼 부당한 지시에 맞서 200여 명의 학생이 체포되고 부상자가 속출한 과정 속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던 그날의 학생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빛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당시 10대로서 2·28민주운동에 참여하셨던 주역들은 이제 여든 중반의 연세가 되어 이 기념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미래의 주인인 청년과 학생들이 이분들의 뜻을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눈부시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66년 전 오늘 2·28정신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①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저기 우리들의 태양이 이글거리기 때문”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2월 28일 오전 11시, 대구 북구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거행됐다.

‘저기, 우리들의 태양이 이글거리기 때문’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2·28민주운동 참여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해 66년 전 대구 학생들이 외쳤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합성을 되새겼다.



햇볕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들이 두류공원 2·28민주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하는 모습

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 10분, 두류공원 2·28민주운동기념탑에서 참배가 진행됐다. 이날 참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해 여행용 2·28원로자문회의 의장과 2·28민주운동 참여 주역들, 대구·경북 주요 인사와 광주광역시 부시장 및 부교육감 등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과 헌신의 뜻을 기렸다.

본식은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2·28이야기, 기념사, 기념공연, 2·28찬가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 전반에 2·28민주운동 참여학교 후배 학생들이 함께해 선배 세대의 민주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김윤식 시인의 시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이는 2·28민주운동을 직접 목격한 시인의 언어를 통해, 불의에 맞서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구 학생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강렬한 태양처럼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여는 공연은 배우 김남희가 시(詩) 문구를 대사로 재구성한 1인극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으로 막을 열었다. 민주주의의 빛이 되었던 학생들의 결단과 용기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무대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배우 김남희의 1인극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공연 모습

이어진 순서에서는 광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2·28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참여 학교인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학생 2명이 주제 영상 '출발역 2·28'을 통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또한 대구 지역 4개 고등학교 후배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하며, 66년 전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외쳤던 선배들의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에서는 가수 경서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밤하늘의 별'을 노래해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참석자 전원이 함께 '2·28찬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기념식 종료 후에는 경북중·고 총동창회와 경북여고 총동창회에서 행사 참석자들을 위해 빵을 기부하며 뜻을 보탤다. 선배들의 마음이 담긴 빵은 기념식에 함께한 학생들에게 전달되었고, 민주정신을 기리는 자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66년 전, 잠들어가는 민주주의를 깨우기 위해 불의에 맞서 일어섰던 대구 학생들의 용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며 “이번 기념식이 2·28의 숭고한 정신을 모든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2·28민주운동은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 최초의 민주운동”이라며 “불의에 맞선 정의와 열정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대구와 대한민국을 밝히는 살아 있는 정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2·28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의 출발점”이라며 “66년 전 교복 입은 학생들이 보여준 용기처럼, 어떠한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책임과 연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6년 전 타오른 그날의 태양은 아직도 이글거리고 있다. 2·28의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용기이자,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빛으로 계속될 것이다. 

 가수 경서와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기념공연 모습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이모저모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은 엑스코 서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이모저모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앞서 식전 참배행사를 위하여 대기중인 2·28원로자문위원들의 모습

2·28참배에 앞서 광대훈 회장을 비롯하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곽대훈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광주광역시 부시장,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및 2·28민주운동 참여 주역들이 이번 참배행사에 참여 하였다.





2·28기념식 장소인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대기중인 원로위원들의 모습



애국가를 제창 중인 내빈들의 모습



윤수빈 아나운서가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이모저모

2·28민주운동 유공자 및 참여 8개 고교 학생 등 총 800여 명이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배우 김남희의 1인극으로 2·28기념식을 시작하였다.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은 저리 우리들의 태양이 이글거리기 때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28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이 2·28이야기를 전하는 모습





가수 경서와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노래하며 공연을 하고 있다.



경북중·고 총동창회와 경북여고 총동창회에서 기념식 참석자들을 위해 빵을 기증하였다.

②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

“시민의 일상 속에서 만난 2·28”



2·28민주운동 66주년과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 개막식은 2월 5일 오후 2시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C(범어역)에서 간략히 진행됐다. 원로자문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곽대훈 2·28기념사업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여행용 2·28원로자문회의 의장의 축사에 이어 테이프 커팅으로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백재호 사무처장의 사진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기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되새겼다.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의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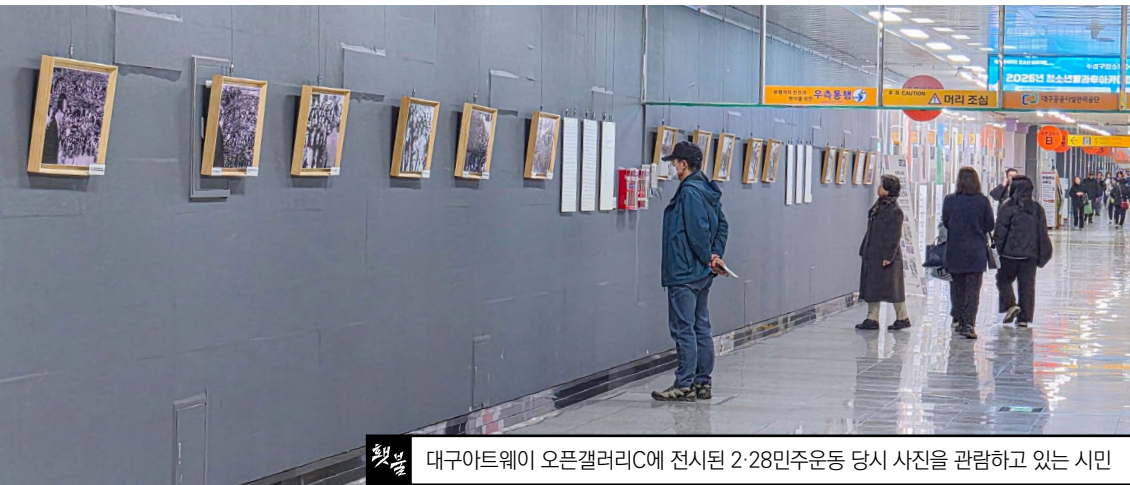
햇불 여행웅 2·28원로자문회의 의장의 축사



햇불 원로자문위원들과 함께한 사진전 개막식 테이프 커팅

1차 전시는 2월 5일부터 20일까지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C에서 열렸으며, 이어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반월당 역에서 2차 전시가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시민의 일상 공간인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2·28정신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구아트웨이 전시는 긴 벽면 구조를 활용해 흐름에 따라 구성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2·28민주운동 기록물 5점을 비롯해 현장 사진, 해외 언론 보도자료, 관련 문헌 등 총 50여 점의 자료가 벽면을 따라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1960년 2월 28일의 전개 과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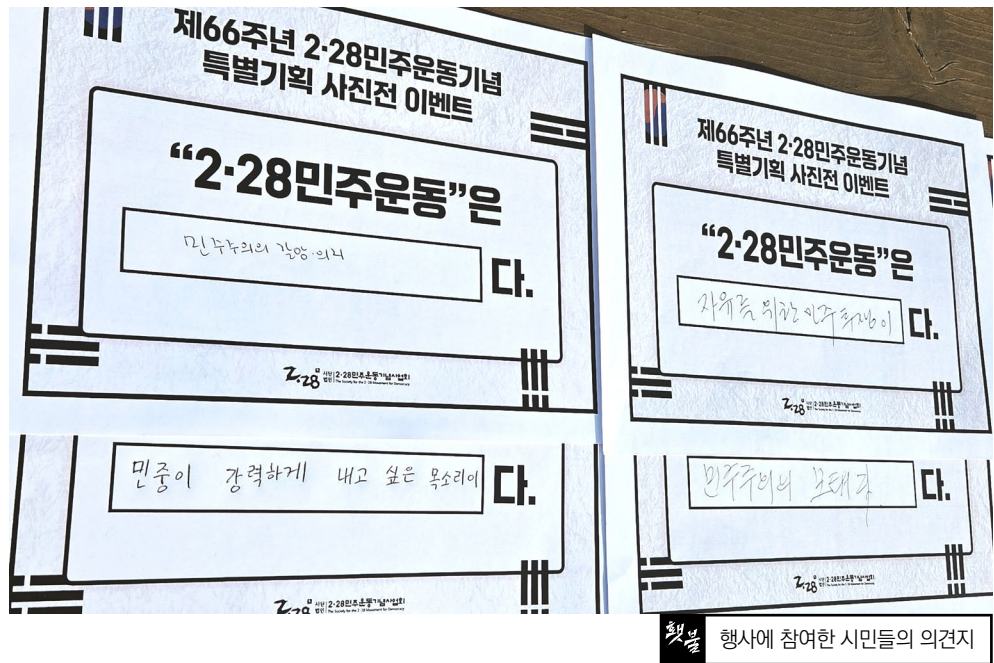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C에 전시된 2·28민주운동 당시 사진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




반월당역에 전시된 2·28민주운동 당시 사진을 관람하며 해설을 듣고 있는 시민

반월당역에서 진행된 2차 전시는 공간 특성에 맞춰 핵심 자료 중심으로 구성 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28민주운동은 ()다’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참여 이벤트를 통해 각 세대가 인식하는 2·28의 의미를 직접 표현하도록 했다. ‘출발점’, ‘대구의 근본’,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뿌리’ 등 다양한 답변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특별기획 사진전은 지하철 역사 전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세대를 잇는 연계 전시로 확대됐다.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비롯한 9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시를 운영하며 2·28정신을 확산했다. 온라인 전시관도 병행 운영해 전국 어디서든 관련 기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진전은 시민의 일상 공간 속에서 2·28을 다시 마주하고,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그날의 정신을 오늘과 내일로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③

2·28을 기억하고 노래하라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정신 문화축전”

2·28민주운동 66주년을 맞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월 27일 동성로28아트스퀘어에서 시민문화공연 「2·28을 기억하고 노래하라」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전야제 형식의 무대로, 기념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을 통해 2·28정신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팝페라 가수 배은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배은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진행으로 무대를 이끌었으며, 팝페라 공연에서는 깊은 울림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노래했다.



사회 중인 팝페라 가수 배은희

통기타 가수 채의진은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힙합그룹 데카&바스텍은 생동감 있는 퍼포먼스로 저항과 자유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어린이 중창단 행복을 부르는 아이들은 맑은 목소리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대를 잇는 무대를 완성했다.



통기타 가수 채의진




어린이 중창단 행복을 부르는 아이들

공연의 마지막은 극단 한울림의 2·28 주제 뮤지컬 공연이 장식했다. 1960년 그날의 상황과 학생들의 결연한 의지를 무대 위에 재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햇볕 극단 한울림



공연을 마무리하며 곽대훈 회장은 “이번 공연은 기념식 전날 시민들과 먼저 만나는 전야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2·28정신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인 만큼, 문화와 예술을 통해 그 정신이 시민들의 삶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문화축전은 기념식을 앞두고 2·28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되새기는 자리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문화로 확장한 무대로 마무리 됐다. 



햇볕 공연이 끝난 후 인사말 중인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④ 대구시립교향악단 2·28민주운동 66주년 특별연주회

“기억과 울림”

대구시민주간과 2·28민주운동 66주년을 맞아 대구시립교향악단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특별연주회 <기억과 울림>을 2월 27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양 기관이 함께 마련한 네 번째 기념 음악회로, 2·28의 역사적 의미를 음악으로 되새기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민주간(2월 21일 국채보상운동기념일~2월 28일 2·28민주운동기념일)을 맞아 열린 이번 연주회는 기념식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설명이 아닌 ‘울림’으로 전하고자 기획됐다.



햇불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을 찾은 관객들의 모습


공연은 대구시향 부지휘자 박해산의 지휘로 진행됐으며, 소프라노 이채영과 테너 김명규가 협연했다. 1부에서는 오페라 서곡과 아리아, 한국 가곡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희망,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냈다.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으로 막을 열고, ‘마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사랑스러운 그 이름’, ‘아름다운 나라’ 등을 통해 서정과 울림을 전했다. 마지막은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로 밝게 마무리했다.

2부에서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9번이 연주됐다. 전쟁 직후 작곡된 이 작품은 경쾌함과 긴장이 교차하는 음악으로 시대의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으며, 역사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현실을 비추는지를 보여주는 곡으로 평가된다.


박해산 부지휘자는 “2·28민주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시민의 자긍심이자 정신적 유산”이라며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공연이 시민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음악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산 지휘자를 비롯한 대구시립교향악단원의 모습

이어 광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 회장은 “2·28을 기리는 방식은 해마다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며 “대구시향과 4년째 함께 이어온 이 음악회는 2·28정신을 보다 품격 있고 깊이 있게 전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2·28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연주회는 2·28의 정신을 예술적 울림으로 확장하며, 기억을 현재의 감동으로 이어가는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2·28 정신, 기억·기념을 넘어 계승·실천으로



홍덕률

(전 대구대학교 총장, 사회학)

1. 2·28 기념식, 뿌듯함 뒤의 허전함

올해 우리는 2·28민주운동 66주년을 맞았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주역들이 80을 넘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66년 동안 기념사업회와 대구시민은 2·28민주운동을 기리기 위해 쉽지않이 노력했다. 기념탑을 건립하고 전시관과 기념도서관도 개관했다. 국가기념일 지정을 이뤄냈고 2·28자유광장을 조성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는 당시의 사진과 성명서, 선언문 등 관련 기록물 6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쾌거를 거뒀다. 2025년 12월, 계간지 <2·28햇불>이 통권 100호를 발행한 것도 뜻깊은 성과였다.

매년 2월 28일, 그날 그 학생들의 기개와 정신을 기리는 기념식도 거행해 왔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2018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으로 격을 높였다. 첫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하해 주었으며, 한달 전 66주년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해 '2·28의 도시, 대구' 시민을 격려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미래가 독재의 어둠에 가려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빛을 밝혀준 것은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 알고 보니 대구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60여년 후 이 땅의 내란을 막아냈던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습니다.'



대구시민으로서 가슴벅찬 격려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뿌듯함 뒤에 개운치 않은 뭔가가 남는 것은 왜일까? 대구시민으로서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속절없이 밀려드는 허전함 같기도 하고 난처함 같기도 한 그 뭔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탈리아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베네데토 크로체(1866~1952)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라고 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과거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고뇌하는 우리의 문제의식과 만나 새롭게 살아 움직일 때만 비로소 ‘의미있는 역사’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크로체의 문제의식에 비춰볼 때, 우리는 2·28 민주운동을 ‘지금, 여기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는지 묻게 된다. 우리는 2·28 민주운동을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집중해온 것은 아닐까? ‘지금 여기’의 민주주의 위기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우리는 2·28 민주운동으로부터 어떤 의미와 교훈을 얻고 있는가? 기념식 뒤의 이 허전함도 크로체의 문제의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체를 찾아 나서본다.



2. 어느덧 어색해진, 기념될 뿐인 2·28 정신

오래전 얘기지만 대구는 원래 역동적인 비판 정신을 자랑하던 '정의의 도시', '저항의 도시'였다. 예컨대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대구는 이승만대통령에 맞섰던 진보 계열 조봉암후보에게 72.3%의 표를 몰아주었다. 그때 조봉암후보는 서울에서 37%, 전남에서 28% 득표했고 전국 득표율은 30%였다. 1950년대의 대구는 압도적인,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반독재·항거의 도시'였던 것이다.

1960년의 2·28민주운동은 그 연장선 위에 있었다. 그리고 3·8 대전민주의거, 3·15 마산의거를 거쳐 마침내 4·19 혁명을 이끌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화로 물줄기를 튼 첫발이 2·28민주운동 이었던 것이다. 그 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은 헌법 전문에서 기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신으로 우뚝 섰다. 그 4·19 혁명정신이 1979년의 부마항쟁으로, 5·18 광주항쟁으로, 6·10 민주항쟁으로, 촛불혁명으로, 최근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지며 오늘의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세워낸 것이다. 한마디로 대구는 피흘림과 시련으로 점철된 민주화 역사에서 선구적 역할을 감당한 민주 도시였다. 2·28민주운동 만큼 '반독재의 대구 정신'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문제는 그 뒤였다. 정작 이 나라를 ‘민주화의 길’로 안내하고 난 뒤, 대구는 4·19 민주이념을 밟고 권력을 탈취한 5·16 쿠데타와 이어진 유신 쿠데타,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 주역들이 대구경북 출신이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망국병인 지역주의 정치가 이 땅에서 뿌리내리고 번창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校壇에서 決議文을 朗讀하는

더 큰 문제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들이 모두 반헌법, 반민주 정권이었다는 사실이다. 유신, 긴급조치, 인혁당 사건, 광주학살, 보도지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은 용납될 수 없는 반자유민주주의였다. 하지만 그들은 ‘보수, 보수주의’를 자처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격노할 보수 참칭이었다. 보수주의가 반민주주의, 반헌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대 보수주의의 핵심 이념과 가치는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보수 참칭은 보수주의의 참뜻마저 비틀고 오염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권력 획득과 권력 행사 모두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정권들은 ‘반민주·독재’일 뿐,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제대로 된 보수주의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에는 점차 지역주의와 반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독재권력의 기반’, ‘뒤틀린 보수의 진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2·28 정신은 고향 대구에서마저 차츰 설 땅을 잃기 시작했다. 그렇게 2·28 정신은 ‘지금 대구’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생명력을 잃고 단지 기념될 뿐인 66년 전 사건으로 위축되게 되었다.

3. 2·28 정신과 12·3 내란

‘뒤틀린 보수’의 진지로 눌러앉은 대구는 12·3 내란에 맞닥뜨리면서 더큰 혼란에 빠졌다. 대다수 국민이 12·3 내란의 반헌법·반민주의 본질을 간파하고 ‘윤석열탄핵·내란척결’의 깃발을 들었지만, 대구는 어정쩡했다. 난처했고 곤혹스럽기까지 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탄생한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꽤 많은 대구경북 엘리트들이 정권에 깊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정신 수호, 민주주의는 결코 정파적 구호일 수 없다. 특정 정당과 정파의 독점물도 아니다. 극좌나 극우가 아니라면 진보, 보수 모두에게 군의 정치 불개입과 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가치인 것이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인류사회의 보편 가치이자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12·3 내란 반대는 정당과 정파는 물론 지역과 나이와 성별과 종교의 구분을 넘어선 상식인 것이다. 2·28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헌법 전문이 천명한 4·19 민주이념을 존중하는 정치인과 시민이라면, 더더욱 12·3 내란과 윤어게인 주장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12·3 내란척결의 대열에 함께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무리 보수 정치인이라 해도 2·28 정신의 세례를 받고 성장한 대구의 정치인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12·3 내란척결을 통한 보수 정치의 합리적 재건이었다.

그러나 ‘2·28의 도시 대구’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부에 의해 내란으로 판단된 이후에도 대구는 12·3 내란을 청산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계엄을 지지·동조했거나 윤석열 탄핵·체포를 반대한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유독 대구에서만쯤은 듣기가 쉽지 않다.

어느덧 12·3 내란 후 1년 4개월이 흘렀다. 내란의 후유증을 정돈하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12·3 내란과 그로 인해 촉발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대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12·3 내란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2·28 정신을 기억했고, 그로부터 교훈과 답을 찾았는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1960년 2월의 고등학생들처럼 오로지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모범적으로 앞서 나섰는지, 혹여 12·3 내란세력을 지키려 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4. 민주주의 위기 시대, 다시 살려내야 할 2·28 정신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는 지구적 현상이다. 지난 세기에도 민주주의는 자주 위기에 처해졌지만 그 위기는 대부분 밖에서 비롯됐다. 파시즘과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이 대표적이다.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세계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는 대부분 내부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운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난해한 숙제로 등장한 것이다. 혐오와 배제가 대화와 토론을 질식시키고 있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선동과 악성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있다. 2차대전 후 금기시됐던 신나치와 다윈주의를 위협하는 인종주의, 배타적 애국주의가 활개치고 있다. 근본주의 종교가 '종교의 정치화, 정치의 종교화'를 부채질하고 있고 거짓 정보와 조작, 확증편향이 민주주의 공론장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게 세계 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과 미국도 예외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12·3 내란도 그와 같은 세계사적 흐름 안에서 빚어진 비극이었다.






이럴 때일수록 밖으로는 세계 각국의 민주화 성공 사례들에서도 배우며 그들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안으로는 더 엄혹한 상황에서도 피흘려 민주주의를 세워낸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배워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

5. 2·28 정신, ‘기억·기념’을 넘어 ‘계승·실천’으로

그러려면 2·28민주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집중했던 그간의 접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그 정신을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재해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다시 빛나게 해야 한다.

66년 전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신념, 개인의 안위를 넘어 국가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의식,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를 ‘지금 대구’의 정신으로 살려내야 한다. 온 국민이 12·3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최초 민주운동의 도시, 대구’답게 민주주의 재건에도 앞장서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체제 내 제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일에도 팔을 걷어야 한다. 청년들이 혐오와 냉소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상상하며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도시’로 세워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구를 명실상부한 ‘2·28의 도시’, ‘정의와 민주주의 선도 도시’로 다시 우뚝 서게 해야 한다.

그 성찰과 결단 위에서 2·28 정신을 계승·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2·28 정신을 오늘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일, 전국의 민주주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2·28민주운동과 2·28 정신에 관심갖고 연구하게 하는 일, 전 국민이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함께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는 일, 대구와 전국, 나아가 세계의 민주주의 연구기관 및 실천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오늘날 위기에 처한 세계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내고 나아가 심화·확장해 가는 일 등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 진력해야 한다.

66년 전 대구의 거리를 밝혔던 그 햇불이, 그때 고등학생들이 품었던 그 순수한 정의감이 오늘 우리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타오르기를 염원한다. 최초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물길을 튼 2·28민주운동의 주역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물려준 숭고한 2·28 정신 앞에서 대구와 대구시민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년 2월 28일, 67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어떤 허전함이나 난처함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고 ‘2·28의 도시, 대구’ 시민으로서 맘껏 기뻐하며 자부심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실록 2·28』 발간과 그 기록의 의미¹⁾



조해정
(사)산학연구원

1. 들어가며

2·28민주운동(이하 2·28)은 2018년 대한민국의 마흔여덟 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민주화운동으로는 다섯 번째다. 이어 2023년에는 4·19혁명 기록물과 함께 2·28 사진 5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2·28의 역사적 위상은 세계사적 민주주의 기록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동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28 주체의 구술 아카이브, 연구총서, 학술논문 자료집 등 다량의 기록물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사건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은,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서사형 기록물은 없는 상황이다.



2·2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애니메이션 등 2·28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흐름이다. 그러나 일부 창작물에서는 역사적 맥락이나 사건의 핵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서사가 구성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또 학교 교육과 기념관 탐방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 서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2·28의 주체 세력이었던 학생들이 이제 고령의 세대가 되었고, 당시의 기억과 증언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 이 글은 『실록 2·28』의 일러두기·프롤로그·에필로그·목차·본문의 텍스트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압축과 생략을 거쳐 『실록 2·28』 발간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기억들도 적지 않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28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축적해온 구술 자료와 문서, 사진, 영상 기록을 종합하여 사건의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재구성한 기록서의 발간을 추진하였다. 단행본의 성격은 기존의 스토리와 그동안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거나 가려졌던 스토리를 재가공해, 전시·교육·해설·영상 콘텐츠 제작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초·중·고 학생과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건의 흐름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는 서술방식이였다. 이러한 전제 아래 집필된 기록물이 『실록 2·28』²⁾이다.

『실록 2·28』은 2·28에 대한 기억과 증언 및 다양한 기록을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한 기록물이다. 27일 밤, 연합시위 계획을 주도한 학생들과 그 좌표에 따라 부당한 학원 탄압에 분노하며 저항하던 수많은 학생이 교정을 뛰쳐나와 연합시위를 일으켰다. 시민들과 언론의 적극적인 지지도 있었다. 이에 『실록 2·28』에 등장하는 인물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였으며, 개인의 영웅화보다는 사건의 전개 과정과 구조적 맥락에 초점을 두었다. 서술과정에서 자료 간의 차이나 표현상의 불일치는 가능한 한 교차 검토를 거쳤으며, 연대기적 기록방식을 기본으로 압축과 생략을 병행해 독자가 사건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실록 2·28』은 ‘현대사의 실록’으로서 ‘사실 기록’을 기초로 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전후 맥락과 당시 배경을 설명하는 보조적 장치를 덧붙였다. ‘노가바 사건’, ‘가짜 이강석 사건’ 등이 그것들이다. 또 2·28의 증거가 되는 현장 사진을 수록하고, 사진 자료가 없는 부분은 삽화를 추가함으로써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탬다. 이러한 서사적 보완은 문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추측성 서술이나 해석 중심의 평가는 지양하였다.

2) 실록(實錄)이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로, 『조선왕조실록』이 대표적이다. 실록은 한 임금의 재위 동안의 정령(政令) 및 기타 사실을 연월일 시대순으로 편년체 방식의 기술한 역사서이다.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왕이 승하한 후 사초와 시정기(時政記) 등을 토대로 초초(初草), 중초(中草), 정초(正草)의 세 단계를 거쳐 실록을 완성했다. 해석보다 사실의 축적과 배열을 중시하였다. 『실록 2·28』 역시 이러한 기록방식을 준거로 삼아, 축적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편년체 서술 구조에 스토리 형식을 결합해 기록하였다.

2. 『실록 2·28』 발간

가. 2·28민주운동이란?

주지하듯, 2·28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이 운동은 일요일 등교 지시 이후부터 시위가 일어난 날까지로 본다면 5일간이다. 그 과정은 1960년 2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그 절정의 날은 2월 28일이다. 당시 외신의 평가처럼, 2·28은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민주화의 흐름에 첫 물꼬를 튼 사건이었다. 대구 고등학생들의 결단과 용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첫 장을 여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3월 15일로 예정된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각축전을 벌이던 때였다. 집권당인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은 전에 없이 선거유세에 사활을 걸었으며, 노골적이고 명시적이었다.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 대다수도 막바지로 치닫는 선거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묵시적이었지만 최대 관심사로 작용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목표 지향점을 향한 선거전은 사실상 전투에 가까운 양상을 띠고 있었다.

당시 ‘야당 도시’로 불리던 대구·경북지역에 2월 27일 토요일에는 여당의 이기봉 후보가, 28일 일요일에는 야당의 장면 후보가 수성천변에서 선거유세를 예정하고 있었다.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치달은 가운데, 집권당인 자유당은 27일 선거전에 시민을 동원하고자 온갖 방안을 취하며 지시했다. 반면, 28일 일요일 열리는 야당의 민주당 유세장에는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저지했다. 특히 정치에 민감한 고등학생들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구 시내 국·공립 초·중·고에 강제등교 지시가 떨어진 것이 그 주된 증거다. 그 발화점은 경북도당이었으며, 이는 ‘1당 2국’ 체제하에서 ‘지령-지시-통보’의 절차로 작동된 결과였다. 즉, ‘경북도당의 지령-도학무국의 지시-학교당국의 통지’라는 고리가 맞물린 행태였다.

25일부터 27일까지 일요일 강제 등교 지시를 받은 대구 시내 8개 국·공립고등학교는 이를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경북고등학교·대구고등학교·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경북여자고등학교·대구여자고등학교·대구농림고등학교(현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대구상업고등학교(현 상원고등학교)·대구공업고등학교였다. 27일 밤, 경북고·대구고·경북대 사대부고 학생 11명은 밤늦도록 불의에 맞서 연합시위를 벌이기로 최종 결의했다.

28일 일요일. 조기시험, 토끼사냥, 영화감상, 졸업 여행연습 등 여러 이유로 등교한 학생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자유롭지 못한 자유당 정권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고등학생들의 함성은 웅크리고 있던 대구 시내를 깨웠다. 그토록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하나를 더하는 엄혹한 시대에 감히(?) 항거할 수 있는 계층은 없었다. 고등학생들의 집단적 저항에 정부도 시민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 결은 확연히 달랐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흩어지거나 경찰서로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그럼에도 저녁에는 경북대 사대부고 학생들이, 29일에는 대구상고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도 경찰에 의해 곧 진압되었으나, 시위의 파급력은 컸다.

29일. 국내 언론들이 이른바 ‘대구학생데모(demonstration)’에 대해 일제히 언급했다. 방송과 신문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그뿐만 아니다. 전날의 엄혹하고 긴박했던 순간을 세계 외신도 주목하며, 연이어 보도했다. 더 타임즈(The Times),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재팬 타임즈(The Japan Times) 등은 이를 ‘이승만 독재와 자유당의 주도권에 제동을 건 저항의 역사’로 평가하며, 이 사건이 한국 전역으로 더 큰 규모의 시위가 촉발할 것으로 예고했다. 외신의 예측처럼 1960년 2월 28일 학생들의 시위는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 수립의 서곡이 울려 퍼졌다.

『실록 2·28』 발간과 그 기록의 의미

2·28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 그리고 주체 세력인 고등학생들의 용기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28민주운동은 식민지 지배와 분단, 전쟁에 이어 이승만 독재 체제하에서 모두 체념적 순종(resigned submission)에 빠져 있을 때, 대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이렇다 할 시민사회 세력도, 믿을 만한 정당도 존재하지 않은 어둠 속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한 그 첫 번째 목소리... 공포를 이기고 일어난 용기, 정의감, 희생정신이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만든 것이다.'³⁾ 이 평가는 2·28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역사적 이유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나. 2·28 기록물

2·28은 가까운 과거사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당대사'다.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시위에 참여했던 주체 세력 대다수가 생존하며, 각자의 기억을 통해 지금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보태지고 지워지기도 한다. 어떤 대목은 더욱 선명해지고, 또 어떤 부분은 변화하거나 흐려진다. 이는 2·28의 기억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당대사를 기록하는 일에는 언제나 예민함이 앞서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도 동반된다. 그럼에도 2·28을 '실록'이라는 형식을 빌려 하나의 서사로 남기고자 한 이유는, 지금까지 발간된 다양한 연구서가 대체할 수 없는 기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올해가 2·28 66주년이다. 그동안 2·28기념사업회를 통해 여러 기록물이 발간되었다. 계간지 《햇불》, 『2·28민주운동 국·영문개론서』, 『2·28민주운동 아카이브1_22인의 경험과 기억』, 『2·28민주운동 교육용교재』, 『2·28민주운동과 중등교육』, 그리고 학술논문 자료집 등 방대한 기록물이 축적되고 있다. 이들 자료는 2·28의 배경과 전개,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대체로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기록물들이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3) 김태일 교수는 2·28의 정치사적 의의를 이념의 대자성, 주체의 근대성, 투쟁의 선도성으로 보았다. 김태일, 「4월 혁명의 출발: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 2002.

표1.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발간 및 관련 학교 발간 도서(계간지 포함)

연도	도서명(계간지명)	비고
2001~현재	계간지 《햇불》	(2001~현재 / 제100호)
2000	『2·28민주운동사』	40주년
2010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50년』	50주년
2017	『2·28민주운동과 중등교육』	교육용 교재
2019	『22인의 경험과 기억』	2016년 아카이브 자료1
2020	『The February 28th Democracy Movement : Korea's First Democratic Movement』	영문개론서
2020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60년』	60주년
2022	『2·28민주운동』	국문개론서
2023	『2·28민주운동, 그리고 민주주의』	2·28민주포럼(제1차~22차) 발표자료 편집
1991	『제42회 졸업 30주년기념문집』	경북고등학교
2011	『2·28민주운동 주역들의 이야기』	경북고 제42회 졸업 50주년
2021	『2·28의 참모습』	경북고 2·28의거 60주년기념문집
2021	『달구언덕 2·28』	대구고등학교

상기 표에는 『22인의 경험과 기억』과 주체 세력들의 관련 학교에서 발간한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도서는 사건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기보다는 개별 경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자료들이다. 구술 혹은 자술에 기반한 개인의 2·28 경험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그 어떤 해석의 자료보다 가치가 있는 이 성과물은 『실록 2·28』을 성립시키는 핵심적인 원형 스토리로 기능했다. 이 개별적인 기억의 서술들을 통해 유기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었다.

다. 『실록 2·28』의 구성

『실록 2·28』은 제10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의 ‘해방의 함성’을 ‘2·28의 함성’으로 연결 지은 이유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가치실현의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것의 직접적인 증거물이 현장에서 낭독한 결의문, 동행 촬영한 사진,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직접 쓴 시(詩)다. 덧붙여,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사진과 삽화를 추가해 내용의 이해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다.

『실록 2·28』 발간과 그 기록의 의미

책봉 제1부

『실록 2·28』의 서문으로 2·28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다. 1945년 일제 강점기가 막을 내리고 해방의 기쁜 ‘함성’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식민지 폐허 위로 미군정시대가 들어섰다. 아울러 제1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권력 고착과 종신집권을 위한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였고, 불안과 공포가 사회에 만연했다. 이승만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자신의 무능, 불법행위를 수면 아래로 낮추었고, 군사·행정권을 장악해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 그 과정에서 ‘독재’ 행위는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전 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갔다.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는 집권당의 행태가 학원에까지 미쳤고, 급기야 ‘일요일 등교 지시’라는 어처구니없는 만행까지 저지른다. 1945년 전국을 뒤흔든 ‘함성’이 15년 뒤 2·28의 주체 세력들에 의해 다시 대구 시내에서 울려 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책봉 제2부와 제3부

이 대목은 2·28의 배경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조직과 개혁을 통해 명시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전체 구도에서 당시 ‘야당 도시’로 불리었던 대구로 시선을 옮겨왔다. 사건과 인물과의 거리를 좁혔고, 설명식 나열에서 스토리로 연결해 하나의 사건이 이어질 것을 암시했다. 대통령 후보자 조병옥 박사의 서거, 이를 애도하며 당시 유행하던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른 ‘노가바 사건’,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연대를 형성했던 배경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책봉 제4부에서 제9부

사건을 촉발해 절정으로 치달은 대목이다. 2·28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일요일 강제 등교령 - 연합시위계획 - 시위 실행 - 경찰서 연행과 심문’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서술했다. 25일 경북고에 이어 27일에는 다른 학교에도 일요일 등교령이 내려졌다. 이에 학생들의 분노와 항거의 목소리는 한 학교에서 여러 학교로 확산되었고, 시위 계획도 개별에서 연합시위로 확대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27일 밤은 골방에서 연합시위를 위한 모의 상황을 묘사했다.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역사의 무게감,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으로 잠을 청하지 못하고 뒤척였던 밤이었다.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이기도 하다. 연합시위의 갈등, 두 손이 결박된 채 투옥되는 모습, 시위 후 부모님과 선생님의 모습, 결의에 찬 비장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 스스로 두려움을 떨치고자 애국가를 불렀으나, 불안감과 두려움은 점점 더 엄습해왔다. 침묵을 가르는 패종시계 소리가 이를 대변한다.

28일 거사의 날에는 학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일어나고 있음을 엿었다. 학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연합시위가 어긋나고, 교문에 갇히거나 사전에 발각되는 등 외적인 갈등이 증폭된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를 제외한 여러 학교가 산발적으로 시위를 일으키거나 참여하는 모습을 장소에 따라 교차 혹은 병렬식 서사구조로 서술했다. 옴니버스적 형식을 차용한 구성이다.



시위 학생들이 반월당을 통과할 때 시민들의 박수갈채, 경찰의 진압을 피해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기록했다. 시위를 주도한 학생 수백 명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심문 과정을 거치거나 귀가 조치되는 대목까지 서술했다.

『실록 2·28』 발간과 그 기록의 의미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이번 『실록 2·28』에서 주목한 곳도 이 대목이다. 결의문과 사진, 그리고 시를 다룬 대목이다. 이는 2·28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로,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다. 하청일의 결의문 작성은 제10부에 별도로 다루었다. 김수일이 촬영한 결의문 낭독하는 모습과 거리로 뛰쳐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강렬하면서도 압도적이다.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은 시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바로 적은 시였다. 이 시는 29일자 신문에 실렸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동참한 대구일보 이근우 문화부장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책봉 제10부

대구상고의 29일 시위와 경찰서에서 시위 주도자들을 회유하는 우상봉 서장, 그리고 결의문을 작성한 하청일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결의문의 특별함과 결의문 작성자에게 가해진 일련의 과정이 이후 개인의 삶과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시위를 주도했던 몇몇 학생들의 삶도 블랙리스트 안에서 청춘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서술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 정신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표2. 『실록 2·28』의 목차

단원	소제목
제1부 그늘진 시대의 그림자	- 1945년 8월 15일~1960년 2월 28일까지 요약
제2부 “못살겠다, 갈아보자!”	-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권력 남용 - 야당 도시, 대구 - 선거를 앞당기다
제3부 상실의 시대, 그 한가운데서	-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 서거 - 노가바사건 - 연대, 그것들의 고리
제4부 일요일 강제 등교 지시	- 27일 vs 28일의 술책 - “뒤편카노! 정말이거?” - 이유는 묻지 마라. 내일 등교! - 8개교에 일요일 등교 지시
제5부 몇 걸음 앞선 학생들	- 경북고, 독재에 저항할 발칙한(?) 꿈을 꾸다 - 대구고, 시위를 위한 꿈틀거림 - 3개교, 동인동 냉돌방의 연합시위 계획 - 대구고, 시위 독려와 동참할 결심 - 부끄러움을 아는 양심, 애국가로 달려다
제6부 1960년 2월 28일, 거사의 날은 동트고	- 신새벽 - 사대부고의 이른 동행, “국내 언론보다 외신이 보도할 거야.” - 대구고, 결의문은 불타고 - 계획된 연합시위, 동참을 호소하다
제7부 “가자! 경북도청으로!” 함성과 함성	- 경북고, 결의문 낭독으로 시위를 선포하다 - 대구고, 시위의 격랑(激浪) - 경북 사대부고, 단식 농성과 야간 데모 - 경북여고, 강당 농성을 뚫고 시위 현장으로 - 대구여고, 무용연습보다 시위에 - 대구농고, 흩어져 수성천변으로 - 대구상고, 29일 담장 부수고 시위하다 - 대구공고, “노래자랑이 웬말이냐?”

『실록 2·28』 발간과 그 기록의 의미

단원	소제목
제8부 민주로드와 성지 반월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 집결지, 반월당 -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 그 유일하고 영원한 사진 - 오늘을 기록하라,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다 - 해외 언론도 주목한 1960년 2월 28일 - 쫓고 쫓기며 숨은 골목과 상가
제9부 도경찰국& 남대구경찰서로 연행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거 전부 주모자라고? 주모자를 색출하라!” - 시위 후 유세장에서 붙잡히다 - 4인방의 도경찰국 연행과 선무방송 - “저놈아가 주동자다. 점마 저거 체포해라!”
제10부 블랙리스트 안에서 청춘은 흐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담으로 시작된 29일 - 33인 소집, 이상봉 서장의 계약 - 결의문으로 남은 선배, 하청일 - 더 이어지는 것들

4. 나오며


1951년 10월 1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종군기자 찰스 하그로브(Charles Hargrove)는 “한국의 폐허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싹트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썼다. 그는 이승만의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를 비판하며,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냉소적으로 진단했다.

그랬던 그가 다시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60년 3월이었다. 동경특파원이 된 그는 ‘쓰레기통에서 처음 장미꽃을 피운’ 용기 있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통역사와 함께 대구를 찾았다. 일요일, 경북고를 방문한 그는 텅 빈 교실에서 공부하던 2학년 유권재 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2·28에 관해 묻고 돌아간 그의 행보는, 국제사회가 2·28을 한국 민주화운동의 출발점, 곧 하나의 ‘데모(demonstration)’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찰스 하그로브의 눈에 요원해 보였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후 역설적으로 증명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과 그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으며, 우리 시대의 정신이자 꺼지지 않는 햇불로 이어져 오고 있다.

『실록 2·28』은 당시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으며, 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실록 2·28』 속의 고등학생들은 시위를 계획하면서도 망설이고 갈등하며, 때로는 충돌하거나 물러서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선택의 연속 선상에서 끝내 ‘부끄러움을 아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독재에 항거했다. 『실록 2·28』은 그러한 판단과 선택의 과정이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서사다.

『실록 2·28』의 발간은 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책은 수년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집필되었지만, ‘그때 일어났던 그대로’를 온전히 재현할 수는 없었다. 압축과 생략을 거쳤으며, 드라마틱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기보다는 사실의 흐름을 최대한 충실히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그럼에도 『실록 2·28』은 완결된 결론이라기보다 하나의 기록 단계로 열려 있는 기록에 해당한다. 미흡한 서술과 오류,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구술증언과 미발굴 자료가 덧붙여진다면 이 기록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훗날 『실록 2·28』이 개정증보판으로 다시 엮일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새



박기옥

시답잖은 사고로 어깨를 다쳤다. 나이 든 의사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웃음을 참는 빛이 역력하다. 가만히 있는 가로수에 스스로 몸을 부딪쳐 나뉘는 구는 명칭한 여자가 연상된 모양이다.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 ~”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우선 약물치료부터 ~”

어깨는 쉬 낫지 않았다. 오른쪽이라 움직임에 더 불편했다. 통증이 팔까지 내려와서 온 신경을 건드렸다. 세수할 때도 팔이 뒷목까지 닿지 않아 짜증이 났고, 잠잘 때도 팔이 눌러 자주 깨었다. 나는 의사한테 불평을 늘어놓았다. 의사는 묵묵히 듣더니 약물치료와 어깨 운동을 지속해 보자고 말했다.

다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의사가 MRI를 찍어보자고 했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MRI는 왜? 겁이 덜컥 났다. 위축되고 긴장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머리도 감았다. 나의 운명이 온통 MRI라는 기계에 맡겨지는 것처럼 어젯밤에는 잠도 설쳤다.

이른 시간이지만 병원으로 출발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다른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다. 입학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신경이 온통 MRI에 집중되었다. 예상대로 병원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선 채로 조금 기다리기로 했다. 초겨울 바람이 쌀쌀했다.

병원 앞에 자그마한 화단이 보였다.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화단이었다. 남천죽을 위시하여 자갈한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그 아래, 햇빛에 마르기 시작한 젖은 흙 위에, 어떤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저 혼자 날개를 파닥이며 뒤채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리 하나가 기억 자로 부러져 있었다. 한 뼘도 채 안 되는 작은 새가, 부러진 다리로 날아오르려 애쓰고 있는 것이었다. 새는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했다. 눈물겹도록 치열하게 되풀이했다. 몹시 힘이 들어 보였다. 미세하나마 핏자국도 보이는 것 같았다. 어디서, 무얼 하다 다친 것일까.

새 앞에 아예 쪼그리고 앉았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새에 무지했다. 약을 발라 주어야 하나. 밴드를 붙여 주어야 하나. 손을 가만히 내밀어 보았다. 새가 내 손 안에 오롯이 들어오기를 기대했다. 나는 나의 진정이 새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힘겨운 동작을 멈추고 잠시나마 내 손 안에서 편히 쉬길 바랐다. 새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의 존재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았다. 같은 동작만 즐기치게 되풀이했다. 다친 다리를 올렸다 내리다가 여린 날개를 접었다 펴기를 계속했다.

“일찍 오셨네요.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기척을 하며 병원 문을 열었다.

“아, 네에”

내가 마약 몸을 일으켰을 때였다. 기적처럼 새도 잠시 꺾꽂이 서는가 했다.

“아 ~ !”

새가 날아올랐다. 제힘으로, 날쎄게, 뒤도 안 돌아보고 새는 날아갔다.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할 말을 잃고, 우두커니, 보이지 않는 새를 눈으로 좇았다. 새는 이미 눈앞에서 사라졌다. 코발트빛 가을 하늘에는 뭉게구름 몇 점만 떠 있을 뿐이었다.

MRI 결과지를 들여다보던 의사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수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어깨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시범이라도 보이듯 어깨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이더니,

“오늘은 어깨 조용하시네. 견딜만한가 보지요?”

그냥 웃고 돌아서는 내게 다시 한 마디 붙인다.

“결국은 본인 하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어깨 운동!”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다, 새는 이미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었다. 부러진 다리로 눈물겹도록 치열하게 날아오르려 애쓰던 새. 기적처럼 저 혼자, 저 스스로 힘차게 날아오르던 새. 오늘 아침 내 마음을 건드린 것은 의사도, MRI도 아니었다. 작은 새였다. 나는 지금도 세상 어딘가를 자랑스럽게 날고 있을 이름 모를 새를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다. 

〈약력〉 박기옥

- 『아무도 모른다』 『커피 칸타타』 『쾌락의 이해』 『아하』 『시간 속으로』 『달의 진화(선집)』 『담장 너머』 출간
- 〈김규련 문학상〉 〈서정주 문학상〉 〈대구의 작가상〉 〈인산기행수필문학상〉 수상
-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역임 / 대구문인협회 부회장 / 한국수필가협회 운영이사

순산을 기원하다



김학조

자궁을 가진 그가 의자에 털썩 걸터앉는다
불그레 상기된 얼굴빛은 의자 색을 닮았다

지하의 길바닥에 뿌리내린
고독의 포만감이 잉태된 자궁
뱃속의 고독은 둥그런 태아를 품고
스스로만이 허락한 안식처에서
핑크빛 좌석을 그만의 성역으로 만든다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하는 임신
트림을 할 때마다
입덧의 구역으로 올라오는
소주 맛이 시큼털털하다

숨을 쉴 때마다
만삭의 배는 태동을 하고
그 깊은 곳에서는
종일의 긴장이 울렁거린다
욕지거리가 출렁거린다
눈치껏 보낸 하루는 털컹거린다

그가 반시계 방향으로 배를 마사지할 때
점점 부풀어 오르는 쥘룩거림
그의 배에 내리꽂히는
익명의 시선들도 함께 쥘룩인다

‘다음 내리실 곳은 경대병원역입니다!’

임산부석의 그가 배를 감싸고 일어선다
뱃속의 그것들을 낳으려나 보다
그를 가득 채운 고독의 순산을 기원한다

딱 잡은 손잡이에 힘이 들어간다

〈약력〉 김학조

《애지》등단. 《시인부락》 시인상. 대구문화재단 공모 ‘다시 봄’ 수필 금상. 옥조근정훈장.

공저 [팔월의 밤같이 짧았다] 외. 전)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 전)시전문 계간지 《시인시대》 편집장. 《상화》 《시인부락》

《천마문예》 편집위원



오늘날

Vietnam

베트남 젊은 세대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애국**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간티두안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라.”

이 말은 1961년에 항미 구국 전쟁이 가장 치열하던 시기에 호치민 주석이 베트남의 소년·청소년들에게 남긴 신성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다. 나라 전체가 전쟁의 연기 속에 잠겨 있던 그때, 이 말은 단순히 조국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 연대의 정신, 서로를 향한 책임과 나눔을 함께 담고 있었다. 세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가르침은 여전히 그 의미를 잃지 않은 채, 모든 베트남인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는 과연 “오늘,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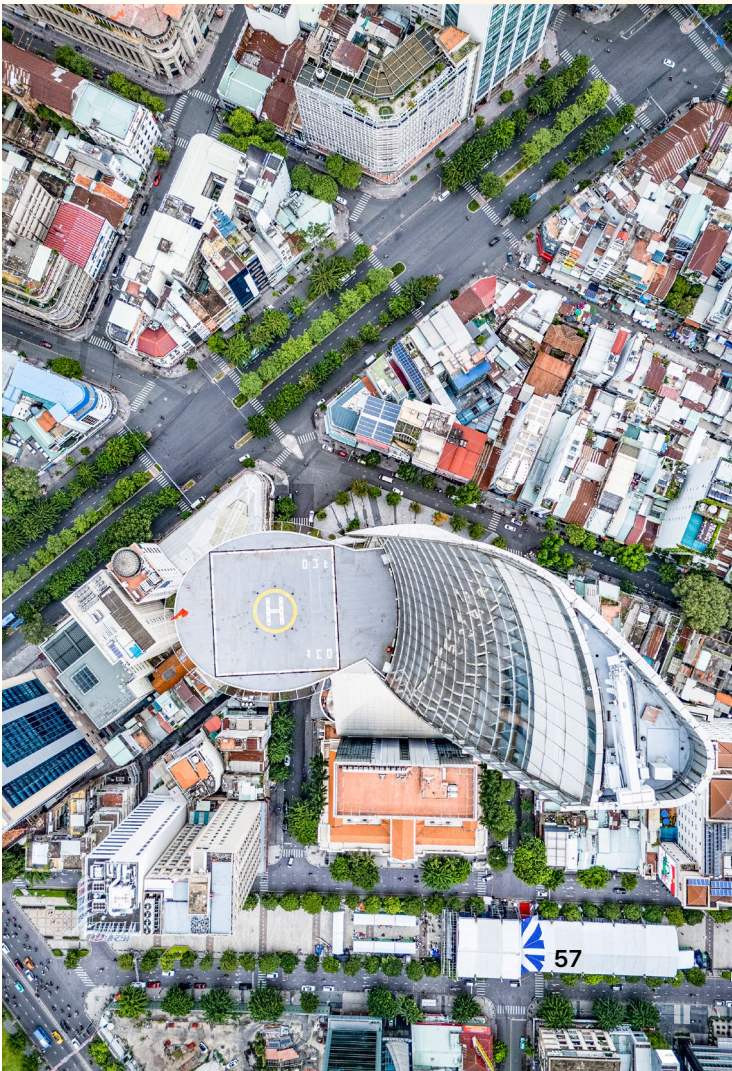
베트남 젊은이들은 교과서의 페이지와 역사 수업, 그리고 선대의 영웅적인 이야기 속에서 성장해 왔다. 어린 시절에 ‘조국’이라는 두 글자는 아마 그저 소박한 개념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태어나 자라난 곳, 바로 베트남. 우리가 이해한 애국은 성실히 공부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말은 바를 다하는 것 등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성장하고, 특히 저한테는 세계로 나아가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깨닫게 된다. 타국에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가슴이 멍멍해지는 순간, 국제 행사장에서 붉은 바탕에 노란 별이 선명한 국기를 발견했을 때의 자부심, 세계 외국 친구들에게 “나는 베트남에서 왔다”고 당당히 말하는 그 자신감 속에 애국은 살아 있다.

애국심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깊은 감정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의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토론 주제가 아니라, 각자가 시대에 걸맞은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이 된다. 선대의 애국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험받았다면, 오늘날 청년들의 애국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드러난다. 더 이상 충성과 참호는 없지만, 지식의 전선, 경제의 전선, 문화의 전선, 그리고 시민적 책임의 전선 등 다른 ‘전선’이 존재한다. 그 자리에서 베트남의 젊은 세대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베트남이 세계 발전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국가 간 격차는 지식, 기술, 창의성으로 측정되고 국력은 더 이상 천연자원에만 달려 있지 않으며,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보인다. 그렇기에 한 시간의 진지한 공부는 단지 성적이나 졸업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연구 과제나 창업 프로젝트 역시 개인적 성취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made in Vietnam’ 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꿈을 품고 연구에 몰두하는 청년들, 밤을 새워 자국민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IT 전공 학생들,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나 창업 대회, 모의 유엔 회의와 국제 청년 포럼에서 베트남의 이름을 빛내는 이들, 그리고 유학 후 해외에 남지 않고 돌아와 쌓은 지식과 경험을 조국에 환원하는 이들. 젊은이들이 기술과 외국어,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일은 곧 개인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로 이어진다. 개인의 성취가 공동체와 국가라는 맥락 속에 놓일 때, 그것은 미래를 떠받치는 작은 벽돌이 된다.

애국은 학업과 창업에만 머물지 않고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또렷하게 드러난다. 감정을 움직이고 널리 확산되는 힘을 지닌 예술은, 젊은 세대가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통로 중 하나다. 예술은 개인의 창작을 넘어, 젊은 세대가 역사와 대화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다. “나는 애국하다”는 직접적인 선언 대신, 이들은 미학적 감각과 깊이를 지닌 창작물 속에 조국을 담아낸다. 음악에서는 역사적 서사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범한 일상 속 풍경과 오늘의 베트남을 노래한다. 평화로운 농촌, 변화하는 도시, ‘번영하고 빛나는 베트남’을 향한 열망이 멜로디 속에 스며든다. 2025년에 남부 해방 및 국가 통일 50주년 기념과 독립 80주년을 맞아 조국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이 발표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 준다.





패션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젊은 디자이너들은 전통 문양과 실크, 토속 직물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베트남 전통 옷인 아오자이 (áo dài)는 더 이상 공식 행사에만 등장하는 의상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변주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설날이나 축제,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 아오자이를 입고 찍는 봄맞이 사진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문화 교류 행사나 졸업식에서 아오자이를 입은 유학생들의 모습은, 세계의 수많은 복식 사이에서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한 베트남의 정체성을 보인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은 젊은 세대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베트남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열어 주었다. 고산 지역을 탐방하는 여행 영상부터 고향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토론하는 팟캐스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콘텐츠들은 모두 국경을 넘어 베트남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화로 수용소(nhà tù Hoà Lò)를 둘러싼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들 수 있다. 한때 전쟁의 기억과 맞닿아 있는 엄숙한 공간으로 인식되던 화로 수용소는 최근 몇 년 사이 전시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SNS 를 통한 활발한 확산에 힘입어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여러 청년들이 관람 영상이나 야간 전시 체험 영상을 제작하고,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친근한 화법으로 전달하며 스토리텔링과 그래픽, 음악을 결합해 역사를 한층 생동감 있게 재구성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역사를 외워야 할 건조한 연표로만 여기지 않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혹독한 수감 생활의 세월과 선대의 굳건한 의지를 알아가려는 그들의 노력은 곧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책임 의식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의 애국심은 공동체를 향한 헌신적인 실천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라가 자연재해나 감염병, 혹은 시급한 사회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청년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현장에 나서는 주축이 되어 자원봉사와 지원,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수천 명의 의대생들이 자원해 감염 확산 지역으로 들어가 검체 채취와 백신 접종, 환자 돌봄을 도왔다. 또 다른 많은 청년들은 ‘쌀ATM’, ‘0원 마트’와 같은 나눔 모델에 참여해 식료품을 봉쇄 구역 곳곳으로 전달했다. 누구도 그들에게 위험한 현장에 나서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꺼이 자원해 위험을 감수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중부 지역에 장마와 홍수가 닥칠 때마다 침수된 길을 건너 생활필수품을 전하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청년 자원봉사단의 모습 또한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푸른 여름(여름 자원봉사 캠페인)’이나 ‘시험철 지원 활동’과 같은 캠페인에서는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농어촌과 오지로 향해 교육 봉사과 생활 기반 시설 정비를 돕고, 수험생과 가족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꾸준한 전통이며, 오늘날 베트남 청년 문화를 상징하는 소중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마도 젊은 세대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넓고도 뜨거운 애국심의 모습은 바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일 것이다. 천 년의 역사를 이어 온 나라에 대한 자긍심, 숭한 격동의 시간을 견뎌 온 영웅적인 민족에 대한 자부심 말이다. 베트남의 붉은 깃발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하나의 박동처럼 함께 뛰는 듯한 장면이 펼쳐진다.


축구 시즌이 돌아와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경기에 나설 때면, 국기 색을 몸에 두르고 관중석을 붉게 물들이는 청년들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질서 있게 거리로 나와 환호하고 응원하는 그 열기는 단순한 스포츠의 즐거움을 넘어선다. 그것은 ‘베트남’이라는 이름 아래, 잠시 서로의 차이를 내려놓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동포’라 부르는 감각이 되살아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신은 국가적인 기념의 순간들 속에서도 이어진다. 남부 해방 및 국가 통일 50주년 기념과 독립 80주년을 앞두고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예술 공연과 전시, 역사 퀴즈 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붉은 바탕에 노란 별이 담긴 프레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과거의 이야기를 또래의 언어로 풀어내며 공유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이벤트 참여를 넘어, 민족의 뜻깊은 이정표와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자부심과 연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Z세대는 전쟁의 포화가 멈춘 시대, 더 이상 나라가 연기와 화염에 휩싸이지 않는 평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대처럼 혹독한 시련을 몸소 겪거나 피와 불의 시간을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향한 마음이 열어진 적은 없다. 그 마음은 여전히 가슴 속에 흐르고 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더 이상 전장에 나가 목숨을 바치는 희생의 형태가 아니라, 배우고 일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하는 노력 속에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진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오늘날 청년들이 보여 주는 애국심은 때로는 뜨겁고 역동적이다. 스포츠 시즌이 되면 붉은 바탕에 노란 별이 선명한 국기를 높이 들고 하나 되어 환호한 동시에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도 존재한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며, 나라의 이미지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의 미래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꿈을 품는 태도 속에 스며 있다. 우리 세대는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 간다. 조용하든 눈부시든, 그 모든 선택은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현재에 책임을 다하며 미래를 향한 열망을 품은 한 세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물론 베트남은 여전히 작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해양 주권 완전한 안정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준다. 환경 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청년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완전히 조성되지 않아 인재 유출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과제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노력과 참여가 더해질 때, 국가는 점차 난관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기반과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베트남이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서당에서 배운 정신, 2·28로 이어지다



이성종

2·28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일보 문화부장이었던 한 언론인의 삶을 아들의 시선으로 돌아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항거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른바 2·28민주화운동은 이후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시민 저항의 불씨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과 지식인들의 선택은 사건의 의미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글은 그날을 직접 기록했던 한 언론인의 삶을, 아들로써 뒤늦게 다시 돌아보는 개인적 기록이다.

1984년 9월 15일 오전, 수업 시간 도중 교실 문틈으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급한 소식이었다. 마음은 앞서는데 발걸음은 따라주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움켜쥔 채 정신없이 내달렸다. 그러나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그곳엔 이미 싸늘한 침묵만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여러 질병과 고단한 삶을 견디다가,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홀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후 40년 동안, 나는 특별히 아버지를 붙들고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도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고, 아버지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고뇌 속에서 글을 쓰고 신문을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다. 아버지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신 적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내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가벼운 마음으로 검색창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먼지 쌓인 서랍을 열듯, 큰 기대 없이 눌렀던 검색 버튼이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단 한 줄의 문장이 나를 한순간 멈춰 세웠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의 기자.”

어쩐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문장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문장이 나를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려가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의 뿌리는 서당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직접 빈적은 없지만 서당 훈장의 딸로서 글과 예절을 가르치는 데 매우 엄격하셨다고 늘 전해 들었다. 서당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곳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눈, 옳지 않은 일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자세, 부끄럽지 않게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태도를 자연스레 물려주는 공간이었다. 당시 조선의 많은 집안들이 그러했듯, 우리 집안도 유교적 가치가 일상의 중심을 이루던 곳이다. 아버지 포함 네 형제는 어려서부터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배우며 자랐고 글자보다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규범을 배웠을 것이다.

특히 할아버지는 대단히 고지식한 분이어서 자식들이 그 스파르타식 교육을 버거워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장남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먼 타국으로 떠나버리고 할아버지는 그 아들을 호적에서 지워버릴 만큼 엄격하셨다고 한다. 두 분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종군기자였다. 나중에 우리나라 언론계의 거목으로 다루어 질 만큼 성공한 언론인이 되었다. 대구시장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신문 1면을 개(犬)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버리고 사직서를 던졌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아버지 역시 글쓰는 직업을 선택했었다. 아버지는 서당에서 유교적 가르침을 배운 뒤 일제 강점기의 학교 교육을 받아야 했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글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배우던 시대였다.



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본어를 잘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대구사범학교 심상과는 당시 한반도에서 손꼽히는 수재들이 가던 곳이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다진 언어 감각에 강제된 일본어 교육까지 더해지니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다언어적 감각을 갖춘 지식인이 되었을 것이다.

얼마 전 아버지의 발자취를 찾아 자료 조사를 하던 중 대구사범학교 재학시절의 성적표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학급에서 거의 최하위권의 성적이었다. 상장 받은게 너무 많아 관리가 힘들었었다는 큰어머니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들여다보니 그 시대의 교육은 일본 중심의 체계였고, 서당의 가르침으로 자라난 조선 청년들에게 본능적 반감과 거부감을 일으켰을 것 같다. 특히 유교적 가르침 속에서 자란 아버지의 성향상 그 억압적 체계에 순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던 양심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소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대구매일신문 문화부장을 맡으면서 당시 일본 서적과 언론에 지속적으로 접했고, 서양의 지식을 흡수하셨던 것 같다. 어린 시절 내 기억 속 집안에는 일본 책과 잡지가 가득했다. 아버지는 늘 무언가를 읽고 계셨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마치 만물박사처럼 느껴졌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늘 아버지에게 질문할 거리를 만들어 갔다.

“우주는 왜 생겼어?”,

“4차원 세계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거야?”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내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적이 없었다.





하나하나 자상하게, 때로는 책을 펼쳐 보여주시고, 때로는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 주셨다.

그 시간이 쌓여, 나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공계의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세상과 자연을 탐구하려는 마음—

그 마음의 씨앗은 아버지가 심어주신 것이었다.


아버지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1960년 2월 28일과 관련된 기록을 읽었을 때였다. 대구의 학생들이 부당한 일요일 등교 지시에 맞서 거리로 뛰쳐나온 그날,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았던 젊은이들의 작은 외침은 대구는 물론 한국 민주주의의 첫 숨결을 일으켰다.

김윤식 시인의 올분 어린 시가 그날의 현실을 가장 먼저 포착했고, 그 시를 지면에 실은 사람이 바로 대구일보 문화부장이었던

서당에서 배운 정신, 2·28로 이어지다

아버지였다. 신문의 한 귀퉁이에 실린 짧은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은 곧바로 독재정권과 충돌을 빚었다. 아버지는 경찰에 연행돼 문초를 당했고 결국 신문사를 떠나야 했다. 말 없이 견뎌야 했던 가난과 병고의 시간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40년이 지나서야 나는 아버지의 삶을 다시 읽어내려 한다. 서당에서 배운 마음, 전통이 가르쳐준 정의와 양심,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잃지 않으려 했던 용기...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 누구라도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평생 남기신 유산은 화려한 경력도, 사회적 명예도 아니었다. 단지 부당함 앞에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였다. 그리고 그 태도는 서당에서 시작해 대구의 신문 지면 위로, 그리고 한 아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다.

당신의 삶은 거창한 영웅담은 아니지만, 확실히 그 시대를 지탱한 수많은 무명의 양심들 가운데 하나였고, 나는 그 사실을 조용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기억하려 한다. 



소년의 춤, 학생들의 행진

영화 '빌리 엘리어트'와 2·28민주운동이 만나는 순간



영화평론가 황규진



역사는 종종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된 것처럼 기록된다. 혁명, 선언, 항쟁, 정권 교체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연도와 함께 교과서의 첫 문장을 장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정한 날짜와 사건명을 통해 시대를 기억한다. 어느 날 혁명이 시작되었고, 어느 날 권력이 무너졌으며, 어느 날 새로운 질서가 등장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최초의 순간은 그렇게 뚜렷한 이름을 달고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변화는 훨씬 더 작고 조용한 장면에서 시작된다. 누군가가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리고 그 거부가 논리적인 문장보다 먼저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충분히 생각한 뒤 행동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떤 장면에서는 몸이 먼저 결심한다. 머리가 뒤늦게 이유를 정리하기 전에 몸이 이미 방향을 정해 버리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누군가가 교문을 나서고, 누군가가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 다른 움직임을 시작할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움직임이 기존 질서에 균열을 만든다. 역사는 때때로 문장보다 먼저 몸에서 시작된다.



빌리가 여학생들과 함께 발레 수업을 받는 장면



빌리가 화장실에서 발레 연습을 하는 장면

소년의 춤, 학생들의 행진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학생들은 교문을 나섰다. 그리고 1984년 영국의 한 탄광 마을에서는 한 소년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나는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영화 속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다. 하나는 거리의 행진이고 다른 하나는 연습실과 무대로 이어지는 춤이다. 처음 보면 두 장면은 서로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더 오래 바라보면 그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몸의 움직임’이 하나의 ‘선언’이 되는 순간이라는 점이다.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영화 ‘빌리 엘리어트’는 흔히 꿈을 이루는 소년의 이야기로 소개된다. 하지만 이 영화의 배경은 결코 낭만적인 세계가 아니다. 영화는 1984년 영국 탄광 파업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시작된다. 마거릿 대처 정부의 광산 폐쇄 정책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탄광 산업을 급격히 붕괴시키고 있었고, 탄광 지역 공동체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빌리의 아버지와 형 역시 파업에 참여하는 광부들이다.

집 안에는 늘 긴장과 침묵이 감돌고, 거리에서는 경찰과 노동자들이 충돌한다. 아이들이 뛰노는 골목 바로 옆에서 정부와 노동자들의 갈등이 계속 되는 것이다.



정부에 맞서 파업을 하는 광부들과 버스에 탄 빌리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빌리의 형

이 탄광 마을은 단순한 영화적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온 노동 공동체이며, 동시에 특정한 삶의 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공간이다. 아버지는 광부이고 아들도 결국 광부가 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계다. 이곳에서 남성의 몸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훈련된다. 강해야 하고, 쉽게 울지 않아야 하며, 결국 노동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말하자면 이 공동체에서 몸은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규정받은 사회적 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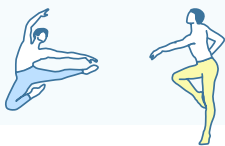
이런 환경에서 빌리가 발레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발레는 이 공동체가 허용하는 남성성에서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리의 춤은 재능의 발견이기 이전에 공동체가 미리 정해 놓은 삶의 경로에서 벗어나려는 첫 번째 몸의 이탈이 된다. 그것은 한 소년이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단이다.

흥미로운 점은 빌리가 자신의 선택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왜 발레를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춤춘다. 화가 날 때도 춤을 추고, 좌절할 때도 춤을 춘다. 그의 춤은 처음부터 우아한 발레 동작이라기보다 억눌린 감정이 몸을 통해 분출되는 움직임에 가깝다. 그래서 빌리의 춤은 아름답기 이전에 절실하다.

영화 속 오디션 장면에서 심사위원이 “춤을 출 때 어떤 느낌이 드니?”라고 묻자 빌리는 오랜 시간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한다. “몸이 전기처럼 느껴져요.” 이 말은 서툴지만 정확하다. 빌리에게 춤은 취미나 기술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감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몸의 대답이다. 그의 몸은 이미 자신이 향하고 싶은 세계를 알고 있는 듯하다.

1960년 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순간이 있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야당 유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임에도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게 했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어야 했지만 그날만큼은 통제의 장치가 되었다. 학생들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교실에 머물러야 했다. 평소와 다른 일요일 등교는 이미 학생들에게 이상한 감각을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교실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모두가 이유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몇몇 학교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곧 대구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문을 나와 거리로 향했다.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완성된 정치 이론도 아니었고 정교한 선언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이미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교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몸이 이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당한 통제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기 삶의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되찾겠다는 뜻이 그 발걸음 안에 담겨 있었다.





2·28민주화운동은 흔히 4·19혁명의 전조로 설명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그날 대구의 거리 위를 지나갔던 학생들의 구체적인 감각은 쉽게 잊혀진다. 낮선 일요일 등교의 어색함, 교실 안에 흐르던 답답한 공기, 누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설 때의 망설임, 그리고 교문 밖으로 나서던 순간의 떨림. 역사는 바로 그런 감각 속에서 태어난다.



빌리가 발레 수업을 받는 장면



빌리가 발레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들킨 장면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생각을 완벽하게 정리한 뒤 행동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몸이 먼저 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몸이 먼저 감지한다. 이 점에서 빌리의 춤과 대구 학생들의 행진은 많은 면에서 닮아있다. 빌리는 발레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선택했고, 대구의 학생들은 거리로 나섬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다. 춤과 행진이라는 서로 다른 움직임 속에는 같은 질문이 담겨 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남들이 정해 놓은 역할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기 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소년의 춤, 학생들의 행진

모든 권력은 결국 몸을 다루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어디에 앉아 있을지,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규정하려 한다. 그렇다면 저항 역시 몸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지정된 자리를 벗어나는 것, 금지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남들이 정해 놓은 리듬이 아니라 자기만의 리듬을 따르는 것. 그런 의미에서 빌리의 춤과 2·28의 행진은 모두 몸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처음 움직이는 몸의 고독이다. 처음 발레를 택한 빌리는 외롭다. 교문을 처음 나서는 학생들 역시 두려웠을 것이다. 먼저 움직이는 몸은 늘 혼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 첫 움직임이 다른 몸을 흔든다. 한 소년의 춤은 가족의 시선을 바꾸고, 몇몇 학생의 발걸음은 도시 전체의 공기를 바꾼다. 용기는 집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몸에서 시작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영국 왕립 발레 학교 오디션 장면



빌리의 합격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모습




행복한 빌리와 아버지의 장면



성인이 된 빌리가 공연하는 장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성인이 된 빌리는 무대 위로 힘차게 도약한다. 그 장면은 단순한 성공의 순간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어 왔던 세계를 넘어서는 몸의 기억이 응축된 장면처럼 보인다. 어린 시절 골목과 연습실에서 분출되던 몸이 마침내 자신의 형식을 얻은 것이다. 대구의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던 순간 역시 그런 도약의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교실에서 거리로, 통제의 대상에서 역사의 주체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소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다. 형태는 서로 달랐지만 두 움직임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몸의 선언이었다. 어쩌면 역사는 거대한 선언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춤과 한 도시의 행진처럼 아주 작고 조용한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1. 2026년 원로자문회의·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26년 제1차 원로자문회의가 1월 15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1월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사회가 열려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두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결산을 점검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출장여비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원로자문위원회에서는 여행용 원로(경대사대부고 10기)가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원로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2026년 제1차 원로자문회의



2026년 제1차 이사회

이어 2월 6일에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최종 승인하고,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였다.

참석자들은 2·28민주운동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뜻을 모으며, 민주정신을 이어가는 기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다짐하였다.



2026년 정기총회



2.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28기념회관에서 개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두류공원에 위치한 2·28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는 백재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 자리에서 기념으로 2·28민주운동 사진집을 증정하며 참배를 마쳤다.

이후 지도부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으로 이동해 2층 대강의실에서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참배 모습



2·28기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습

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28기념탑 참배

지난 1월 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및 조국혁신당 고위당직자들이 대구 두류공원에 위치한 2·28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 대표는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묵념하며 2·28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백재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2·28기념탑의 건립 취지와 상징성,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민주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안내·해설했다. 조 대표는 설명을 경청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였다.



2·28기념탑에 참배 중인
조국 대표 및 고위당직자들의 모습



방명록을 작성 중인 조국 대표

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28회관 방문

지난 2월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방문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백재호 사무처장의 안내에 따라 기념회관 1층 전시관을 둘러보며 2·28민주운동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미, 관련 사진 및 사료들을 살펴보았다.

이어 4층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짧은 백브리핑 시간을 갖고, 방문 소감과 2·28민주운동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다. 이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기념으로 2·28민주운동 사진집을 증정했다.

공식 일정 이후에는 차담회를 통해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2·28기념회관 전시관에서 설명을 듣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방명록을 작성 중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창작 「오페라 2·28」 공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을 주제로 한 창작 「오페라 2·28」이 지난 1월 16일과 17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성황리에 상연되었다. 「오페라 2·28」은 구미오페라단이 제작한 창작 오페라로, 1960년 대구 학생들의 민주 항쟁을 중심으로 억압 속에서도 자유와 정의를 외쳤던 청년들의 용기와 희생을 무대 위에 담아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 재현을 넘어 그날의 함성과 결단이 오늘의 민주주의로 이어졌음을 예술적으로 조명했다. 당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갈등과 고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음악과 합창, 극적인 장면 전환으로 생생하게 풀어내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주요 장면에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어우러지며 2·28의 역사적 의미를 감동적으로 전달했다.

공연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민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환기하는 뜻깊은 무대로 마련되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에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예술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오페라 2·28 출연진들의 커튼콜 모습



오페라 2·28 출연진 및 2·28유공자, 회원 단체 사진

6. 2·28민주도서관,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2·28민주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 인식을 넓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대구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이파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2주마다 선정해 각자 읽은 뒤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월 4일 열린 모임에서는 한스 로슬링의 『팩트폴니스』를 함께 읽고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독서동아리 '이파리' 활동 모습

또한 도서관은 3월 한 달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 ‘꿈틀꿈틀 우리 역사 첫걸음’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위한 교과 연계 한국사 특강 ‘생생! 교과연계 역사탐구’를 운영했다. 두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러 3월 28일에는 안도현 시인을 초청한 강연 '작가와의 만남'이 열렸다. 대구 시민 6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강연에서는 신작 『쓸데없이 눈부시게 세상에는 있어요』를 중심으로 문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2·28민주운동기념도서관
안도현 작가와의 만남
<쓸데없이 눈부시게 세상에는 있어요>
"기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아픈 것이 그 사람은 밤에 웃는다고 믿는다"
안도현 시인의 열두번째 시집 출간
작고 빛나는 존재들, 그 다양한 문장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일시 2026.3.28.(토), 14:00 ~ 16:00
대상 대구지역 주민 60명(14세 이상)
장소 회관 4층 문화강좌실
문의 053-257-2280
<신청하러 가기>

MBTI 내 마음 지금 어떻게?
나와 닮은 그림책
내가 몰랐던 내 마음의 색깔을 찾아보는 시간
그림책 속 주인공과 함께 나만의 MBTI 유형을 탐험해보요!
신행하러 가기
신청기간 2026.3.19.(목) ~ 4.2.(목).
신청대상 초등학생 1~3학년 15명(비회원 가능)
강좌기간 2026.4.4. ~ 5.23.(매주 토요일, 총 8회차)
10:00 ~ 12:00(2시간)
수강료 무료(교재교구비 10,000원 별도)
신청방법 2·28민주운동기념도서관 홈페이지 내 신청
문의 053-257-2280

나와 닮은 그림책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는 그림책,
진짜 내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MBTI를 통해 그림책 속 주인공과
나의 닮은 점을 찾아보며,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신청기간 2026.3.19.(목) ~ 4.2.(목).
강좌기간 2026.4.4. ~ 4.25.(매주 토요일, 총4회차)
14:00 ~ 16:00(2시간)
신청대상 대구지역 성인 20명(비회원 가능)
신청방법 2·28민주운동기념도서관 홈페이지 내 신청
문의전화: 053-257-2280
신청하러 가기

4월에는 신규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그림책 속 주인공과 함께 MBTI 유형을 탐색하며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해당 강좌는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되며, MBTI를 활용해 그림책 속 인물과 자신의 공통점을 찾아보며 지친 일상을 돌아보고 위로와 휴식을 얻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모든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은 2·28민주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2·28민주도서관 053-257-2280

7.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2·28대학 제14기 성황리 운영

2·28대학 제14기가 3월 11일(수)부터 5월 27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2·28대학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2·28민주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에는 김용일 전 계명대학교 부총장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강의를 시작으로, 하세현 경북대학교 교수,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교수, 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권업 DGIST 석좌교수,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철수 계명대학교 석좌교수, 허종 충남대학교 교수, 김정숙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박순국 전 매일신문 편집위원, 배한철 매일경제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2·28대학 제14기 김용일 전 계명대학교 부총장의 강의 모습

또한 5월 6일(수)에는 봄맞이 국립대구박물관 견학도 진행되어, 강의와 현장 체험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강의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 2층 강의장에서 진행되며, 학기 중에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평생교육원(053-423-0228)

2·28청년아카데미, 청년 수강생 모집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2·28청년아카데미'가 제9기를 맞아 올 봄 새 학기를 개강한다.

제9기 2·28청년아카데미는 '청년, 시대를 묻고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1960년 2·28 민주운동이 던졌던 질문의 정신을 오늘의 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본 과정은 역사·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시대를 읽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 인문 아카데미로 운영된다.

특히 최용호 2·28민주운동 주역(경북대학교 명예교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권정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공저자,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예정되어 있다. 또한 '2·28정신과 선비문화 체험' 현장탐방과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수강 대상은 대구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청년(20~50세)이며, 프로그램은 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운영된다.

2·28청년아카데미

일정	강의 주제	강사	
4.23.(목)	65년 전 청년, 오늘의 청년을 만나다 / 개강식	최용호	2·28민주운동 주역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4.30.(목)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권하나	섹세스이미지컨설팅 대표
5.7.(목)	지방에 살지만 꿈은 글로벌	추현호	(주)과타드림랩 대표
5.16.(토)*	<2·28정신과 선비의 길을 걷다> 현장탐방		
5.21.(목)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과 TK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
5.28.(목)	AI시대의 청년도시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6.4.(목)	청년 리더를 위한 ChatGPT 활용 전략	엄기홍	경북대학교 교수
6.11.(목)	트렌드코리아2026로 본 대한민국 트렌드	권정윤	트렌드코리아 시리즈 공저자
6.19.(금)*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공연관람		
6.25.(목)	한강의 기적이란 원래 없었다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7.2.(목)	클래식과 재즈의 향연	황찰리	재즈아티스트
7.9.(목)	대구미래 100년을 향한 대구혁신 / 수료식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8. 2·28민주운동 라디오 캠페인 송출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라디오 캠페인이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대구MBC를 통해 송출되며, 지역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2·28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은 하루 3회 편성된다. FM 96.5MHz에서는 오전 9시 4분에 1회, FM 95.3MHz에서는 오전 7시 59분과 오후 4시 59분에 각 1회씩 총 2회 송출된다. 출근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에 맞춰 편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라디오 캠페인 녹음은 지난 1월 23일 광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이 직접 참여해 진행했으며, 해당 음원은 12월까지 방송될 예정이다. 다만 편성 상황에 따라 송출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대구MBC에서 캠페인 녹음 중인 광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2·28민주운동 라디오 캠페인 원고

내레이션: 광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두려움보다 컸던 정의를 위해 그날 입었던 교복은 부정과 억압에 맞서 싸운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첫걸음 2·28민주운동, 역사는 그들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9. 2·28TV 대담 촬영

2·28TV 대담 촬영이 3월 19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담은 2·28민주운동의 생생한 증언과 역사적 의미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대담에는 이방현 원로(대구상고 33기)가 출연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현장 경험, 그리고 2·28민주운동이 지닌 역사적 가치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학생으로서 직접 겪었던 기억과 민주 정신에 대한 소회를 담담히 풀어내며 좌담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촬영된 영상은 편집을 거쳐 2·28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방현 원로 대담촬영 사진

2·28TV 공식 유튜브 채널 안내

2·28민주운동의 다양한 영상과 원로 증언을 2·28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https://www.youtube.com/@2.28TV>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 도서관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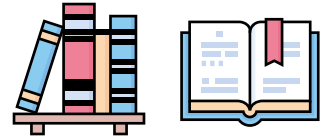
1. 2·28민주운동기념회관 3층 (대구명덕초등학교 옆)

※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

구분	일반 자료실	유아·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평일 (화~금)	09:00~19:00		09:00~18:00
주말 (토~일)	09:00~17:00		

2. 대출안내

- 대출시, 본인도서회원증(실물 또는 모바일 대출증)으로 대출가능
- 자관내 1인 최대 10권, 15일간 대출가능 (대구 공공도서관 총 30권)
- 다자녀회원은 1인 20권, 20일 대출가능
- 관외 대출중인 도서에 한해 1인 2권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가능 (문자 통지 후 3일 이내에 미대출시 자동으로 예약취소)



3. 유의사항

- 타관 및 부록자료 반납은 데스크에서만 가능 (무인기기 반납불가)
- 무인 기기 대출 및 반납시 확인증 반드시 확인
- 도서 반납 후 2일 이후에 대출 가능 (연장불가)
- 자료실 내 음식물은 반입 금지
- 정기간행물은 자료실 내 열람만 가능
- ☎ 053-257-2280

2·28법률·세무상담실 무료 운영 안내

1.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

- 법률 : 최덕수 변호사 (매주 화·금요일 14시~17시)
- 세무 : 서성욱 세무사 (매주 금요일 10시~12시)

2. 장소 및 문의

- 장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2·28법률·세무상담실
- ☎ 053-217-0228



발행인 광대훈

편집인 백재호

편집위원 김상진, 김약수, 이은경, 조두진, 하청호, 송정희

발행처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228.or.kr

인쇄 2026년 3월

발행 2026년 3월

인쇄처 성심인쇄

- 『2·28햇불』은 홈페이지(www.228.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2·28햇불』은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2·28햇불』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제작하여 회원들과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에 증정합니다. 2·28의 학생들이 외쳤던 '민주'와 '정의'의 뜻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볼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 『2·28햇불』 구독 중단 요청 ☎ 053-247-2285

2·28 민주운동 66주년 기념

2026 제4회 전국청소년 댄스·가요제

Fly to The Dream

2026. 5. 23. (토) PM5

|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야외무대

| 지원자격

K-pop 스타를 꿈꾸는 전국 2002~2015년생 누구나

|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6년 4월 1일 (수) ~ 5월 4일 (월)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www.228.or.kr)에서

대회요강 확인 후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예)가오_팀명, 댄스_팀명

|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대표자,팀원 모두 작성)

2. 퍼포먼스 영상(5분 내외, FHD 이상, 자유곡

확장자(MP4,avi,wmv)

3. 나이증명서류(본선진출시)

*이메일 접수 (h-artsmusic@naver.com)

| 심사

예선: 2026년 5월 8일 (금) ~ 9일 (토)

예선결과발표: 2026년 5월 12일 (화)

본선: 2026년 5월 23일 (토) 17:00

(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확인 (www.228.or.kr)

| 시상내역

구분	인원	상금
대상	1팀	5,000,000원
금상	2팀	각 1,500,000원
은상	2팀	각 500,000원
동상	5팀	각 300,000원



문의: H-arts (에이치아츠)

0507-1341-5199

* 자세한 부분은

2.28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확인

주최 |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주관 | H-Arts

문의 | 에이치아츠 0507-1341-5199



ISSN 2983-0060

사단법인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